

## 국소성 간질환의 진단에서 다중시기 나선식 CT와 T1,T2 강조영상 및 역동적 조영증강MRI의 비교

조용호, 강형근, 정용연, 김형길, 윤만원, 정광우, 정태웅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

**목적:** 다중시기 나선식CT와 T1,T2 강조영상 및 역동적 조영증강MRI에 의한 국소성 간질환의 발견율과 병변의 특성화를 비교 평가해보고자 하였다.

**대상 및 방법:** 병리조직학적, 임상적,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진단된 73명의 환자에서 129예의 국소성 간질환(간세포암 53예, 혈관종 36예, 단순낭종 20예, 전이암 15예, 간내담도암 5예)을 대상으로 하였다. 모든 환자에서 다중시기(2중시기;동맥기,문맥기 또는 3중시기;동맥기,문맥기,지연기)나선식 CT와 T1,T2 강조영상 및 역동적 조영증강MRI를 시행하였으며 CT와 MRI의 시행간격은 30일 이내였다. 임상 및 다른 영상소견을 모르는 2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독립적으로 CT와 MRI에서 국소성 간질환의 발견율과 병변의 특성화를 결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.

**결과:** 총 국소성 간질환의 발견율은 CT와 MRI에서 각각 81%(105/129), 96%(124/129)였고, 병변의 특성화는 각각 60%(77/129), 89%(115/129)였다. 각 질환별로는 간세포암의 경우 CT와 MRI에서 발견율은 각각 83%(44/53), 91%(48/53), 특성화는 각각 53%(28/53), 75%(40/53)였으며, 혈관종의 경우 CT와 MRI에서 발견율은 각각 75%(27/36), 100%(36/36), 특성화는 각각 69%(25/36), 100%(36/36)였으며, 단순낭종의 경우 CT와 MRI에서 발견율은 각각 85%(17/20), 100%(20/20), 특성화는 각각 65%(13/20), 100%(20/20)였으며, 전이암의 경우 CT와 MRI에서 발견율은 각각 87%(13/15), 100%(15/15), 특성화는 각각 53%(8/15), 100%(15/15)였으며, 간내담도암의 경우 CT와 MRI에서 발견율은 각각 80%(4/5), 100%(5/5), 특성화는 각각 60%(3/5), 80%(4/5)였다. 통계학적 분석상 간세포암의 발견율, 간내담도암의 발견율 및 특성화에는 CT와 MRI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( $p>0.05$ ), 간세포암의 특성화, 혈관종, 단순낭종, 전이암의 발견율과 특성화에는 MRI가 CT보다 유의하게 높았다( $p<0.05$ ).

**결론:** 국소성 간질환의 진단에 있어 T1,T2 강조영상 및 역동적조영증강MRI는 다중시기 나선식CT보다 비교적 우수한 방법이라 사료된다.